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신청 ... 2월22일까지

완주군이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투입, 약 250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터,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다만,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관정 이 있어야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차량종류별로 165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5대에 한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완주군청 6층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18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김제시는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8년 12월31일 현재 지역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자 요청 시 우편 및 배포조사를 병행하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 기본현황,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을 조사하며 효율적 조사 및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기 조사된 행정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9월말에 잠정결과를, 12월말에 확정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 '인사정의 7.0' 논란

승진 61명·조직개편에 따른 597명의 전보 등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승진 61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597명의 전보 등 대규모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시청안팎이 시끄럽다.

김제시가 지난 1일 연공서열에 따라 사무관 승진자들을 인사발령 했는데 담당급(계장) 전보인사를 둘러싸고 직원들이 술렁이면서 '인사정의 7.0'이 사실상 무늬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제시는 이번 담당급 전보인사를 시는 이번 6급 담당급 전보인사에

서 조직개편으로 바뀐 경제복지국의 주무과인 경제진흥과 주무계 일자리 창출담당에 A씨를 투자계에 B씨를 각각 임명해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승진예정자로 알려진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한 인사 배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건축직 C씨를 현 위치에서 6급 보직을 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까지 돌고 있어 인사정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번 담당급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의 경우 2년 동안 무려 4명을 바꿨

스스로 전보제한 규정도 무시해 인사규정을 살수시켰다. 민선 7기를 맞은 박준배시장은 줄 곳 시정운영에 밝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 서열 70%이내에 들면 승진에서 우대 '인사정의 7.0'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늘리겠다는 시장의 공약은 사실상 '내 맘대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 따른 기준안 질문에 박준배시장은 "인사정의 7.0과 법령에 따라 인사를 단행 했다며, A씨 자리이동에 대해 일자리 관리가 없어 일자리에 대한 전산화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장성역에도 KTX 정차해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서 지역현안 건의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국정설명회는 현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대표로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이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 및 답변이 있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건의·답변 시간에 첫 번째로 다섯가지에 대하여 건의를 했다.

첫째 경부선 KTX 일반철은 16회에 걸쳐 밀양과 구포를 거치는데 호남선은 2015년까지 다니던 일반철이 익산을 제외하고 운행되지 않아 고속철만 이용하고 있어 김제, 장성역에도 KTX



김제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가 정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확대할 시기에 매년 귀농창업예산 3,000억원이 기재부에서 지난해 이월금 2,500억원을 포함한 3,000억원으로, 신규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김제시 경우 2018년도에는 50명에 84억원 지원, 2019년도에는 2명에 3억7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한국이 900여 차례 외침을 받

고도 망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출산율이 떨어져 2500년이 되면 한국이 사라지는 위기가 발생되어 출생률 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넷째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청년 임대아파트 공급 추진, 다섯째 프랑스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 주택수당,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율 향상을 위해 우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품가공업 지원 강화 ... 19일까지 신청

완주군이 식품가공업 지원을 강화한다.

완주군은 식품가공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가공 및 시설지원사업을 오는 1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2018년 식품가공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 13개소 5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그

규모를 늘려 7개 사업 6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사업 ▲소규모 HACCP 시설개선 지원사업 ▲가공활동 지원사업 ▲로컬푸드 가공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지역 농업인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사업 ▲효초처리 농식

품 가공 소재화 시범사업이다.

이들은 상품개발연구, 시설개선, 노후장비 교체, 포장개선 등으로 농식품업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가공업체, 마을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식품가공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심사와 농정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국의 소통 달인들, 으뜸 완주 알리기

제4기 완주군민기자단, 제2기 소셜기자단 위촉 및 발대식

전국에서 활동해온 '소통의 달인'들이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완주군을 알리겠다고 의기투합해 관심을 끈다. 발로 뛰며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는 가치 아래 '완주군민 기자단과 소셜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11일 오후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완주군 대표 블로그와 SNS를 이끌어갈 '제4기 군민기자단'과 '제2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소통의 달인'들은 총 50명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위촉된 완주 알리미는 전체의 절반인 25명이며, 서울과 경기, 경남 진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출신들이 소셜기자단에 합류해 큰 관심을 끌었다. 타 지역 출신의 소셜기자단이 합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완주군 소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군의 정책이 추진되는 생활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0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더 넓고 더 깊게 볼 것"이라며 "군민이 알고자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려 주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군민기자단과 소셜기자단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군수는 "관심에서 소통으로, 소통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투명으로 나아가 완주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민기자단은 총 29명으로 작성한 기사는 완주군 공식 블로그(wanjublog.com) 완주스토리에 게재되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완주 소셜기자단은 완주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1인 미디어로 활동하며, 생활에 유용한 행정 정보나 정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축제 소식, 맛집과 관광 정보 등을 완주군 공식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총 20명이 선발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김제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교육개강

7월 5일까지 운영

김제시 평생학습관이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9년 상반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3개 과정 39개 강좌에 646명의 수강생을 선발 하였으며 2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20주간 운영한다.

초과된 과목은 추첨제로 인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수강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 10과목의 추첨을 진행하여 수강인원을 확정하였다.

취·창업에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인 방과후지도사, 커피바리스타 등 8개, 산야초교실, 수채화 등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과정 12개, 글꼴 캘리, 통기타, 중급영어B 등 역량개발과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야간 교육과정 19개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행복학습사업체 실습장 건립으로 인해 쉽게 따라하는 홈베이킹, 피부미용, 발마사지, DIY생활목공, 클레에 아트지도사, 풋차스틀리에, 리본공예



과목이 신설되었다.

또한 공개모집으로 역량 있는 강사를 선정, 39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원활한 강좌운영을 위해 2월 7일 개강 전에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사들은 평생학습관의 강좌 운영방침, 강사 준수사항, 체계적인 수강생 관리방법, 교육운영 계획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은 '김제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